

독일에 본사를 둔 메르쿠르 그룹의 미국 법인인 메르쿠르 게이밍 US는 네바다주 게임 위원회로부터 주 내에서 게임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메르쿠르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규제가 엄격한 게임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에 재진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라이선스 승인과 함께 위원회는 메르쿠르가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네바다 라이선스 게임 사업자인 게이밍 아츠 LLC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승인했습니다. 이 거래의 최종 확정은 2025년 3분기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메르쿠르 그룹의 글로벌 운영에 있어 전략적 확장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여 년 만에 미국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메르쿠르가 네바다에 다시 등장한 것은 1998년 미국 게임 분야에 처음 진출한 후 2000년대 초반에 철수한 지 20여 년 만입니다. 이러한 복귀는 해외 성장에 대한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계산된 조치입니다.

메르쿠르 그룹의 감독위원회 의장인 마이클 가우셀만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바다의 승인을 받은 이 순간은 모든 분야에서 메르쿠르 그룹의 법적 준수와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예외 없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바다 규제 당국의 따뜻한 환영에는 "업계 복귀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메르쿠르의 이전 미국 시장 진출을 인정하고 회사의 새로운 의지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155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게이밍 아트스 LLC의 인수는 메르쿠르의 광범위한 재진입 전략에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두 회사는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메르쿠르가 라이선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북미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메르쿠르 그룹의 경영 이사회 의장인 라스 펠더호프는 회사 보도 자료에서 이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게이밍 아트스 LLC와의 긴밀하고 건설적인 파트너십은 라이선스와 다가오는 인수를 위한 모든 필수 전제 조건을 성공적으로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훌륭한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이밍 아트의 소유주인 데이비드 콜빈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메르쿠르가 이뤄낸 이정표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며 네바다 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내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변화:[파워볼사이트](#)

메르쿠르의 미국 재진출은 자국 시장의 규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펠더호프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의 운영 조건은 도박 규제의 진화로 인해 더욱 제한적으로 변하면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로 인해 국내 시장인 독일의 비즈니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계와 함께 독일 게임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펠더호프는 말합니다.

머쿠르의 북미 진출은 해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머쿠르는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미국으로의 복귀는 이러한 성장 궤도를 크게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슬롯사이트](#)

펠더호프는 "북미 카지노 시장에 재진입하면 메르쿠르 그룹의 국제적 성장을 크게 가속화하고 더욱 탄탄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머쿠르의 확장은 네바다주 게임 시장의 광범위한 트렌드를 반영하며, 캄비와 같은 다른 유럽 기업들도 네바다주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